

회생채권도 조기변제 받을 수 있어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계속적인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도중에 임의적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회생채권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조기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생채권자가 중소기업자로서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즉, 회생채권자가 소상공인이고 그가 가지는 채권이 매우 소액이어야 하며, 이를 변

제하지 않으면 채권자 역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영업에 지극히 필수적인 거래처가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는 임의로 위와 같은 변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동종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조기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 몫이 될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너무 적거나 조기 변제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은 조기변제를 허가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채무

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생채권자이고 해당 채권자가 거래 중단을 무기로 조기 변제를 압박하더라도, 거래처 변경이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보다는 영업을 위한 거래처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는 소상공인인 채권자들에게 있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 경색에 빠진 자신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채무자로서도 오랫동안 신의를 쌓아온 필수 거래처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단 조기변제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기변제의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 및 법원과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철저히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과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여·야 협치로 ‘위기설’ 넘어야



**김지수첩
김대환
(건설부동산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던 ‘4월 위기설’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줄고, 폐업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 대비 68.76%(229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21곳) 증가했다. 폐업한 전문건설사의 경우 지난달 618곳으로, 1년 전에 비해 10.75%(60곳) 늘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

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5만7925가구)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에서 1만1867가구로 4.4%(504가구)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HUG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인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달 ‘건

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과도한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4월 위기설’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중 PF 정상화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집행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4월 위기설’이 실현되지 않게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2일 (음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랜 직선이 나에게 돌아오니 행복. **4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졸흔은 신중하게 판단. **60년생** 복 치고 장구 쳐야 하니 바쁘다. **7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4년생** 동업을 하려거든 의심하지 말자.



37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소임을 다한 것이다. **49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다. **6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73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85년생** 모든 인연과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3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50년생** 지친 마음을 자신의 기쁜 소식으로 달랠라. **62년생** 더 배우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 **74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따르자. **86년생** 여유를 두고 덕을 베풀자.



3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51년생** 정보를 새로운 인맥으로 얻게 되니 주변을 잘 살펴라.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다. **75년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87년생** 주변에서 좋은 말을 들어 행복.



40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5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다. **64년생** 힘들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6년생**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자. **88년생** 물질이 귀한 것을 젊은 날 알아야.



41년생 물은 약하게 흐르므로 도리어 강한 힘이 있다. **53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 **65년생** 자식을 너무 엄하게 가르치지 마라. **77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89년생** 오솔길을 혼자 다니니 더욱 외롭다.



42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 **54년생** 투자보다는 평소 애 간수를 잘해야 한다. **66년생** 삶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돈을 모으는 것이다. **7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해보라. **90년생**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자.



43년생 시간은 금이니 활용을 잘해야 한다. **55년생** 신 앞에서는 작은 것 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67년생**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감수. **79년생** 연인에게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91년생** 환경보존 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을.



4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56년생**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 좋은 일이 생길 징조. **68년생** 강을 건넌다면 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80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년부터 양보하는 마음. **92년생**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



4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57년생** 친구가 형제자매보다 낫다. **69년생** 단체에서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있게 마련. **81년생** 성공을 거두려면 고생과 괴로움이 따른다. **93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출현.



46년생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원활히 풀리는 법이다. **58년생** 수레에 두 바퀴가 필요하다. **70년생** 새것이라 좋은 것도 아니요 낡은 것에도 좋은 것이 있다. **82년생**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94년생** 죽은 나무를 살려보려 애쓸 것 없는데.



47년생 옛 상처는 잊고 살자. **59년생** 한바자 책에서도 이익 앞에서는 용감해질 수 있다 했다. **71년생** 더러워진 땅에서 작물은 자랄 수 있지만. **83년생**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95년생** 특별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

뭔가 안타까운 일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하늘도 무심하지..” 하는 탄식을 한다. 그만큼 하늘은 뭔가 정의롭고 이익에 휘둘리는 인간들과는 달리 만물을 품으나 공평무사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권선징악을 관장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들은 당연히 인간들의 머리 위, 저 보이지 않는 높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묵묵히 시절에 맞게 순리대로 순환한다. 움직이며 알 듯 모를 듯 인간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져 온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人在天在看 蒼天有眼).” 이 말은 작년 10월 말 즈음에 유명을 달리던 리커창(李克強) 전 중국 총리가 했던 말이다. 도가와 유학의 고장 출신다운 통찰에서 나온 철학이 엿보인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필자가 정치에 대한 안목은 깊지 못하지만 평소 리커창총리가 보인 소신과 신뢰 있던 모습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지을 수 없다. 통치자들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을 쥐면 위정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리커창은 뭔가 합리적 소신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로 느껴졌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고 했던 건지는 당시 중국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난세에 있어 결출한 인물은 시샘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판에 있지 않더라도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는 이 말만큼은 개인이 되었거나 공인이 되었거나 새겨들을 만하다.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까지는 속일 수가 없어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를 할지라도 마음의 지도에 명확히 각인된다. 업이 스스로를 과보의 길로 인도한다.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는 석가모니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1	2
9		7						3
2					1			5
		4	7	2	6			
			6		4			
			5	4	3	1		
	7		9					1
3						8		9
8	4	1					6	7

9		4		8		3	2	5
			8		3			
7	6			2	5			
		7			1			
1		5				2		6
			2			4		
			3	4			5	1
			1		8			
6	4	8		1		9		3

1	9	9	6	8	2	1	7	8
6	7	8	2	9	1	5	2	8
1	8	7	8	9	6	2	1	9
9	2	1	7	8	9	6	8	1
8	6	8	9	2	1	7	1	9
7	9	6	1	2	8	9	8	2
8	9	2	1	7	1	9	6	8
2	1	1	9	6	8	8	9	7

8	1	6	2	1	9	8	7	9
2	7	9	8	9	1	6	1	8
1	9	9	1	7	8	2	6	8
9	1	7	6	8	2	9	8	9
9	8	7	1	7	6	9	8	1
6	8	8	1	9	9	1	2	7
8	6	1	9	2	7	8	9	1
7	9	1	2	6	8	1	9	2
9	2	8	9	8	1	7	1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